Symphony in C major

- □□

정보

Georges Bizet: Symphony in C major

개요
작곡가: Georges Bizet (1838–1875)
작품명: Symphony in C major 또는 1ère Symphonie, GB 115 (《교향곡 다장조》)
장르: 관현악 교향곡
작곡: 1855년 10월 29일 시작, 같은 해 11월 완성 범위
초연: 1935년 2월 26일, 바젤, Felix Weingartner 지휘
초판: 1935년 9월 Universal Edition
공식 구성: 네 악장
연주 시간: 연주와 반복에 따라 약 29–34분

출판 정보

Bizet 생전에 이 교향곡은 출판되거나 연주되지 않았다. 자필 관현악 총보는 현재 파리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의 MS 425에 보존되어 있으며, 1933년 Jean Chantavoine의 글과 D. C. Parker의 소개를 거쳐 Felix Weingartner가 작품을 알게 되었다. Universal Edition은 1935년 9월 U.E. 10.687로 첫 관현악 총보를 냈고, 이후 Choudens, Eulenburg, Kalmus, Muzyka 등의 판본이 이어졌다. Universal 판과 Choudens 판은 팀파니 파트의 처리에서 차이가 있다는 카탈로그 주석이 남아 있다.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GB 115 서지

Hugh Macdonald, The Bizet Catalogue

조르주 비제의 Symphony in C major는 파리 음악원에 다니던 17세 작곡가가 1855년에 쓴 네 악장
교향곡이다 . Allegro vivo, Andante: Adagio, Scherzo: Allegro vivace, Final: Allegro vivace가 차례로 이어지며, 밝은 다장조의 추진력과 느린 악장의 서정, 스케르초의 민첩함, 피날레의 탄력이 균형을 이룬다. 생전의 침묵과 20세기 재발견을 거쳐 오늘날에는 비제의 초기 관현악 감각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연주된다.

소요 시간

녹음에 따라 전곡 시간은 상당히 달라진다. Marc Soustrot와 Aarhus Symphony Orchestra의 2016년 녹음은 29분 34초, Jesús López-Cobos와 Cincinnati Symphony Orchestra의 1990년 녹음은 30분 50초, Paavo Järvi와 Orchestre de Paris의 2009년 녹음은 33분 34초다. Soustrot는 제 1악장 제시부 반복을 생략했고, 다른 녹음은 템포와 반복 선택이 다르다. 따라서 약 29–34분을 실제 연주의 범위로 제시하며, 특정 녹음의 시간이 작품 자체의 고정값은 아니다.

편성

Macdonald의 카탈로그와 BnF 자료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관현악 편성은 다음과 같다.

목관악기: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악기: 호른 4, 트럼펫 2
타악기: 팀파니
현악기: 현악 5부

별도의 피콜로, 하프, 트롬본은 이 편성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1935년 Universal Edition은 팀파니를
크로매틱 팀파니에 맞게 다시 썼고, 1949년 Choudens 판은 다른 파트를 제시한다는 편집자 주석이 있다. 어떤 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팀파니의 음과 연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녹음이나 공연의 세부를 판본과 분리해 말하지 않는다.

네 악장의 구조

I. Allegro vivo
제 1악장은 609마디의 빠른 악장으로, 다장조의 또렷한 주제와 현악의 탄력이 곡 전체의 출발점을 만든다. Macdonald 카탈로그는 239마디에서 반복 기호가 다시 시작된다고 기록한다. 소나타 형식으로 분류하는
설명이 일반적이지만 , 이 형식명은 후대의 분석 용어다. 젊은 비제가 고전적인 주제 대비와 재현의 흐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루는지 들을 수 있는 악장이다.

II. Andante: Adagio
제 2악장은 115마디의 느린 악장으로, 목록에 따라 *Andante (Adagio)*로 표기된다. 오보에가 긴 선율을
제시하고 관현악이 이를 가볍게 받치면서, 제 1악장의 밝은 운동과 대비되는 내면적 시간을 만든다. 후대 음반 평론이 이 오보에 선율에서 성숙한 감각을 느낀다고 평가하지만 , 그 평가는 특정 연주와 청취에 관한 판단이다.

III. Scherzo: Allegro vivace

스케르초는 168마디, 트리오는 266마디이며 두 부분 모두 반복된다. 짧은 리듬 동기가 가볍게 튀고, 트리오가 보다 넓은 선율 공간을 열어 악장 전체에 탄력을 준다. 이 악장은 베를리오즈식 극적 장면이나 후기 비제의
무대 음악을 직접 예고한다기보다 , 음악원에서 익힌 고전적 스케르초 형식을 빠른 프랑스적 감각으로 다듬은 사례로 읽는 편이 안전하다.

IV. Final: Allegro vivace
피날레는 446마디이며, 174마디에서 반복 기호가 다시 시작된다. 빠른 현악 움직임과 관악의 명료한 응답이 앞선 악장의 긴장을 풀어 주고, 다장조의 밝은 결말로 작품을 닫는다. 소나타 형식으로 보는 분석이 있지만, 이 악장에 문학적 줄거리나 극장적 장면을 부여할 작곡가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작곡 시기와 자필 원고
자필 표지는 1855년 10월 29일을 작곡 시작일로 적고, 완성 시점은 같은 해 11월로만 남긴다. 정확한 완성 날짜는 비어 있다. 원고는 30단 오선지 40쪽으로 구성되며, 제 1악장은 2r–16r, 제 2악장은 17r–22v,
스케르초는 23r–28r, 피날레는 29r–40v에 배치되어 있다. Bizet의 미망인 Geneviève Halévy와 Reynaldo Hahn을 거쳐 파리 음악원 도서관에 들어갔고, 1964년 BnF로 이관되었다는 소장 경로도 기록되어 있다.

이 작품이 음악원 과제였다는 설명은 널리 반복되지만 자필 표지에 과제라는 말이 직접 적힌 것은 아니다. 당시 Bizet가 Charles Gounod와 관련된 파리의 교육 환경에서 공부했다는 사실과 작품의 고전적 균형은 여러 연구에서 함께 논의되지만 , Gounod를 단순한 모방 모델로 확정할 수는 없다.

미발표에서 바젤 초연까지
비제는 생전에 이 교향곡을 출판하거나 무대에 올리지 않았다. 1933년 Chantavoine이 작품의 존재를 알리는 글을 썼고, D. C. Parker가 악보를 Felix Weingartner에게 소개했다는 경로가 Hugh Macdonald의
카탈로그에 정리되어 있다. Weingartner는 1935년 2월 26일 바젤에서 초연을 지휘했고, 이후 같은 해 12월 런던, 1936년 1월 빈과 5월 파리 공연이 이어졌다. 초연을 파리의 다른 날짜로 적는 자료가 있으나, BnF와 카탈로그가 일치하는 바젤 기록을 우선한다.

바젤 초연 뒤 작품은 짧은 기간에 여러 도시로 퍼졌고, 1935년 Universal Edition의 초판이 그 흐름을
뒷받침했다 . 이때 출판과 공연은 작곡가의 생전 승인 아래 진행된 것이 아니라, 남아 있던 자필 총보를
바탕으로 후대 음악가들이 작품을 세상에 소개한 과정이었다 .

판본과 소요 시간의 차이
Universal Edition의 1935년 총보와 1949년 Choudens 판은 모두 같은 교향곡을 전하지만 팀파니 파트의 처리에서 차이가 난다. Universal 판은 크로매틱 팀파니에 맞춘 파트를, Choudens 판은 카탈로그가 더

올바르다고 설명하는 파트를 보여 준다. 따라서 팀파니의 실제 음과 연주 방식은 판본을 밝히지 않고 비교하기 어렵다.

음반 시간도 같은 이유로 단순화할 수 없다. López-Cobos의 30분 50초는 네 악장을 각각 9분 59초, 9분 03 초, 5분 34초, 6분 14초로 녹음했고, Soustrot의 29분 34초는 제 1악장 제시부 반복을 생략했다. Järvi의 33분 34초는 보다 여유 있는 템포의 사례다. 서로 다른 반복과 속도는 작품의 구조를 바꾸기보다 연주 관행의
차이를 드러낸다.

영향, 자기 인용과 해석
Gounod의 라장조 교향곡과의 유사성은 Bizet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다. 다만 유사한 진행이나 고전적 설계가
곧 특정 스승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다는 뜻은 아니다. 멘델스존이나 슈베르트와의 관계, 17세 학생으로서의
성숙성에 관한 평가는 후대 분석과 비평의 범주에 둔다.

Macdonald 카탈로그는 피날레 37마디의 주제가 Bizet의 1860년 오페라 Don Procopio의 Marcia militare 제 3곡에서 다시 쓰였다고 기록한다. 이는 교향곡이 1860년에 작곡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후 작품에서 자기 재료를 재사용한 사례다. 왜 교향곡을 생전에 발표하지 않았는지는 Bizet의 직접 편지로 확정되지 않는다. Chevrier-Choudens는 Don Procopio에 일부를 사용하고 출판을 원하지 않았다는 전승을 전하고, Howard Shanet은 Gounod와의 유사성에 대한 우려를 하나의 가설로 제시한다.

20세기 수용과 발레
1935년 이후의 연주 목록에는 Weingartner, Hamilton Harty, Charles Münch, Stokowski, Cluytens, Ansermet, Beecham, Marriner, López-Cobos, Dutoit 등 여러 지휘자가 포함된다. Walter Goehr의 초기 녹음 연도는 카탈로그가 1935년으로 적는 반면 다른 요약 자료는 1937년 11월 26일로 적는다. 녹음일과
발매일이 엇갈리는 자료이므로 초기 음반의 날짜를 단일한 연표로 고정하지 않는다.

Bizet의 교향곡은 George Balanchine의 발레에도 사용되었다 . Balanchine의 Le Palais de cristal은 1947 년 7월 28일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초연되었고 , 1948년 3월 뉴욕 공연에서는 Symphony in C라는 제목으로 불렸다. 이는 비제 교향곡의 다른 판본이나 개정판이 아니라, 같은 음악을 사용한 안무 작품의 제목 변화다.

현재의 녹음과 공연은 이 작품을 단순한 ‘숨은 습작 ’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일부 평론은 고전적 설계와
프랑스적 선율의 즉각성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평론은 느린 템포나 반복 생략이 전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한다. Bizet가 17세에 쓴 원고, 후대 판본의 팀파니, 연주자의 속도 선택을 함께 들을 때 작품의 밝음과 구조적 야심이 동시에 드러난다.

주요 자료

Hugh Macdonald, The Bizet Catalogue 편집자 서문

Hugh Macdonald, Bizet 약전

- Centre de musique romantique française, Bizet □□ □□
- MusicWeb International, Bizet □□□ □□
- MusicWeb International, Järvi □□ □□
- BBC Music Magazine, Dutoit □□ □□
- The Classical Source, Soustrot □□ □□
- Apple Music Classical, López-Cobos □□
- Recording Canon, Beecham □□ □□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Münch □□ □□
- Pacific Northwest Ballet, *Symphony in C* □□□□
- Gstaad Digital Festival, □□ □□ □□